

취업률 50.6%로 하락 … 내년 40%대 우려 경영대학 - 15.5%로 하락폭 가장 커

2014 취업률 · 진학률

권오은 기자 typhoon11@kn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nu.ac.kr

대학 교육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각 50.6%와 10.8%로 경쟁대학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4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2014년 졸업생의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취업률의 경우 대학정원 3,000명 이상인 '가' 그룹 34개 대학 중 24위를 기록했다. 1위 고려대(69.3%), 2위 성균관대(6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학교 취업률 52.5%(32개 대학 중 19위)와 비교해도 저조한 결과다. 취업률은 지난 2012년 54.7%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 2011년 51.9%에서 2013년 55.6%로 상승해온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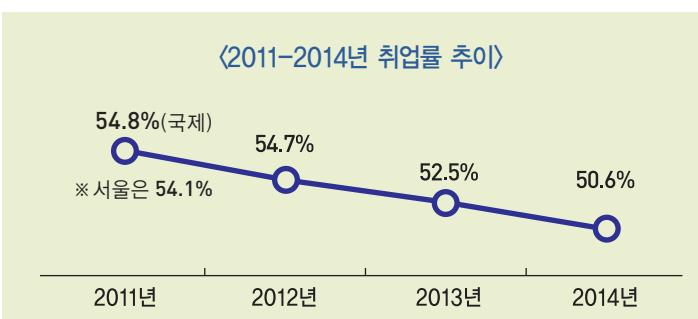
각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는 한의과대학이 82.3%로 가장 높았고, 국제캠퍼스는 전자정보대학이 71.5%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에 서울캠퍼스 무용학부(15.2%)와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29.4%)은 각 캠퍼스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취업률은 등락폭이 상당했다. 경영대학의 취업률이 작년보다 15.5%pt 감소한 50.4%를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생활과학대학(▼13.8%pt)과 생명과학대학(▼8.9%pt) 등도 취업률이 하락했다. 반대로 간호과학대학(주간, ▲15.6%pt)과 문과대학(▲8.1%pt) 등은 취업률이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 3·4면

진학률의 경우 10% 내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1년 9.7% 이후 2012년 11.1%로 올랐으나, 2013년(10.6%)로 다시 하락했고 올해(10.8%) 0.2%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연세대(23.0%), 고려대(23.9%)와는 진학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성균관대(17.3%), 한양대(15.1%), 중앙대(10.9%)보다도 적었다.

**진학률 10% 수준 머물러…
학문후속세대 고민 깊어져야**



〈'가' 그룹(졸업자 3,000명 이상) 취업률 순위〉

순위	학교명	취업률(%)
1	고려대학교	69.3
2	성균관대학교	66.5
3	연세대학교	64.1
4	서울대학교	61.0
5	인하대학교	60.2
6	한양대학교	58.7
7	가천대학교	56.7
13	국민대학교	53.6
15	建国대학교	53.1
24	경희대학교	50.6



* 취업률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취업대상자로 산정한다.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이다.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로 산정한다. 진학자는 '국내·외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인원의 합이다.

생명의 원리, 도의 근본: <중용(中庸)>과 중용 사상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⑬

김수중 (철학과 교수)

인문 교육과 수양을 중시했던 조선 유학에서는 교육과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 먼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등 기초과목을 공부한다. 다음으로 성인이 되면 4서와 5경을 읽는다. 주자학에서 가장 중요시한 사서(四書)를 강독하는 순서는 이렇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개인수양과 사회윤리에 대

한 개괄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 다음에는 그 원리를 삶의 각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한 《논어》를 공부하

고, 그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심화 시킨 《맹자》를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용》을 학습한다. 《중용》에는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강독하게 되어 있다.

《중용》이라는 문헌은 원래 《대학》과 더불어 《예기(禮記)》의 일부분이었다. 송대에 주자에 의해서 독립된 문헌으로서 사서(四書)의 하나가 되었다. 전통적으로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는 존재이다. 누구나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 반성해 보면 뉘우칠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나의 언어와 행동에 지나침(過)이나 모자람(不及)이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었는지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날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용' 사상이다. 동서의 4대문명이 발생하던 기축시대에 이미 각 문화에는 '중용' 사상이 등장했다.

▶7면으로 이어짐



《중용》에는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오한 형이상학이 들어있다.

특별기고

서언회 조수민 회장(성대신문 편집장)

'와자지껄' 해야 할 개강 초, 침묵이 흐른 대학들이 있다. 학보들의 발행이 연기되거나, 결호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학언론의 상황에 대해 서언회 조수민 회장이 '학생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했고 싶다는 뜻을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전한다.

▶7면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n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시선

사설

‘취업 중심’ 경계하지만 사회진출 대책도 절실

우리대학의 취업률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학교 취업률은 올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 할 50%를 간신히 지켰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에서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평균 취업률 54.8%보다 낮은 결과이자, 경쟁대학이라고 말하는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10위권 내 사립대학 평균 취업률 60.6%와도 10% 차이가 난다.

취업률과 함께 발표된 진학률 역시 10.8%로 10위권 내 사립대학 평균 진학률 16.9%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장학금 혜택이 2012년 대비 반토막이 난 고려대의 23.9%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다. 이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당시 대학원 혹은 타 대학으로의 진학을 통해 학문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타 대학에 비해 약하다고 풀이해볼 수 있는 수치다.

대학에서 취업과 진학은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성과’다. 현재의 취업률 산정방식의 한계나, 우리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물론 대학 운영에서 취업을 중심에 두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학의 기본이 교육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있음도 명백하다.

우리대학은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취업과 진학을 애써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는 결국 한 사람의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로 진출하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진출은 현실적으로 취업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대학은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취업과 진학을 애써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연구’ 부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구성원에게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우수학과 평가를 받으면서도, 취업률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발전’은 실체가 없다. 혹자는 ‘교수진은 우수한데 학생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로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뜻’으로 미루기 보다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서 풀어가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대학이 가져야 할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취업프로그램이나 직업소개로는 지금의 하향세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주의 주제 - 지연되는 공공기숙사 문제

경희대생은 동대문구 주민 아닌가요?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연휴동안 이어지는 ‘귀성행렬’은 낯설지 않았다. 출퇴근시간 봄비는 버스와 지하철에 치이는 것에 비해, 오히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고속버스는 편했다. 사실 서울에 사는 학생은 통학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럽다.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없고, 형편상 자취도 할 수 없어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편도 2시간 통학하는 학생이 상당 수기 때문이다.

이런 경인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는 한자락 희망이었다. 1,000명이 채 안 되는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치열한 입사경쟁률은 여전할 것임에도 말이다. 하지만 이 희망마저 건축허가 과정이 길어지면서, ‘희망고문’으로 변질되고 있다.

차라리 마땅한 지연사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측은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통과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 답변은 기자뿐만 아니라, SPACE21 건설사업단과 학생회도 지겹게 들은 이야기였다.

심지어 SPACE21 사업단 측은 구청에서 문제

삼은 부분을 정확히 수정해서 계획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대문 구청의 ‘엠부샤’ 변명은 궁색해졌고 ‘진짜 이유’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임대업자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는 구청이라는 의심은 학생사회에서 ‘혁신’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내하며 기다리던 학생사회는 집단민원과 항의방문까지 준비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이 ‘관’의 의무임을 볼 때 임대업자의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난처해진 현실은 감안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매일 학교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비싼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학생의 목소리 역시 반드시 들어야 할 ‘주민의 말’이다. 동대문구청은 “둘 사이의 문제인 만큼 직접 해결하라”며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언제까지 일관할 것인가.

더 이상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다. 국책사업으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주라고 할 만큼,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은 열악하고 주변 주거환경은 녹록치 않다. 오늘도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하느라 다리가 휘고, 비싼 월세에 허리가 훙다. 이미 구청장이 나서 “원만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할 때다. 결정이 어렵다면, 회기동 주민은 지난달 기준 1만 1천여 명, 경희대학교 학부 학생 수만도 1만 1천 여 명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양궁, 전훈영 선수 올림픽 ‘금’ 기ぼ배 꺾어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9. 1~1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우리학교 경영학부, 영어학부, 정치외교학과 등 3개 학과가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2014 중앙일보 학과별 대학평가 결과 발표…16개 학과 중 12개 학과 중상위권 이상 평가, 경영학부·영어학부·정치외교학과 최상위 선정/대학 홈페이지 Focus, 2014.9.3) 영어학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정치외교학과는 전국 47개 학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공학과는 상위권에 올랐으며, 중국어학과와 행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파공학과, 응용물리

학과는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최상위권 대학은 해당 학과가 운영되는 전국 대학 중 교수당 학생 수, 교수당 논문 수, 학생당 장학금, 취업률 등 9개 지표의 종합 점수가 상위 2.28%에 드는 대학을 말한다. 올해 중앙일보 학과평가는 전국 148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8개, 이공계열 8개 등 총 16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일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제46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우리학교 전훈영(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ぼ배(광주광역시청) 선수를 꺾은 파란을 일으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인천 영선고 민병연 전국 최고궁사 등극/인천일보 2014.9.3) 전 선수는 세트승점 6대 4(30, 28, 29, 28, 29대 29, 29, 27, 30, 27)로 승리했다. 한편, 단체전 여자부에서는 우리학교 양궁부가 순천시청에 세트승점 5대 3(55, 56, 57대 56, 55, 56, 55)으로 패배해 준우승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의무기록팀이 ‘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병원 게시판을 통해 시작했다.(강동경희대병원 의무기록팀, 뉴스레터 창간/청

년의사, 2014.9.1) 의무기록팀은 의료진의 정확한 의무기록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기록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뉴스레터 서비스를 마련했다. 뉴스레터는 3페이지 분량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연간 4회 발간될 예정이다. 방근현 의무기록팀장은 “앞으로도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의무기록의 수준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김형대 원자력공학과 연구팀은 지난 1일 ‘꿈의 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열전달 효율과 한계점을 높인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경희대 김형대 교수, ‘그래핀’ 효율 증대 기술 개발, 연합뉴스, 2014.9.1)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저자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 인터넷판에 실린다. 김 교수는 “액체가 가열돼 끓어오르는 현상인 ‘비듬’이 일어나는 표면에 그래핀 소재를 붙여 열전달 효율을 78%, 열전달 한계점을 60% 높였다”고 전했다. 그래핀은 전기가 잘 통하고 뛰어난 탄성을 지닌 데다가 기존의 물질보다 10배 이상 열전도도가 높아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는 신소재다.

‘정론의 저널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시봉

김윤철
(보도팀장)



JTBC가 메인뉴스를 오는 22일부터 ‘JTBC 뉴스룸’으로 개칭하고, 편성시간을 오후 8시로 옮긴다. 무엇보다 뉴스시간을 100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손석희 앵커는 개편의 이유를 ‘정론의 저널리즘’이라고 설명했다. 100분짜리 뉴스 자체보다 눈길이 갔던 것은 ‘정론의 저널리즘’이란 말이었다. 지난 추석동안 정유정 작가의 『내 심장을 쏴라』라는 책의 결말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두 사람의 ‘마지막’은 긴 시간 동안의 대화나, 생각, 삶은 무시되고 신문기사 11줄로 치환된다.

세상은 넓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더 많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NEWS)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만약 언론이 『내 심장을 쏴라』의 마지막처럼 지극히 표면적인 수준의 보도에 그친다면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실제는 점점 괴리될 것이다. 이미 화면 속과 밖의 세상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간극 속에서 독선에 빠진 이들의 행동은 ‘충격’이란 제목을 달고 다시 뉴스로 생산된다.

언론이 『내 심장을 쏴라』의 마지막처럼 표면적인 수준의 보도에 그친다면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실제는 점점 괴리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시위’를 진행한, 일간베스트 유저들을 지목할 수 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폭식시위대의 발언을 뉴스로 보며, 느낀 분노를 어떤 이는 ‘개밥사료’로 짚어줬다. 정작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미궁 속인데, 언론은 ‘세월호’를 평계로 비상식적인 상황을 중재한다.

미국드라마 『뉴스룸』 주인공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이가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시청률을 쫓기 급급했던 방송국 뉴스를 뉴스의 공공성 회복 ‘선언’과 함께 심층보도와 비판적 관점의 뉴스보도로 바꿔나간다.(JTBC도 이 드라마를 본 계 문명하다!)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지만, 언론이 가야 할 길은 드라마 속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과 같아야 한다.

대학주보도 ‘경희대’라는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지금까지 사건의 단발적 보도에 그쳤던 점을 반성한다. 사과는 변화로 대신하고자 한다. 당장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기사로 속보성을 확보하고, 지면은 주요한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대학주보 온라인에서 ‘이슈 스트립’을 통해 대학사회에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고 늘 문제되는 주요한 이슈에 대한 과거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정론의 저널리즘’ 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기성언론도 이런 다짐에 함께 하길 바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될 ‘욕심’일까.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9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대학 측 '취업률 하락 불가피' 이유, 타당성 낮아

취업률 현황 분석

최승우 기자 dotori14@khu.ac.kr

우리학교 취업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률 산정방식이 건강보험DB기반으로 바뀌고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 통합 집계를 시작한 2011년에 63.6%를 기록한 이후, 반등 없이 올해 50.6%까지 하락했다. 취업에서 개인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의 교육성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차원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이 필수다.

'취업률 하락'에 대해 대학본부는 우리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해명해왔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기업의 남성채용 선호경향과 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특성 ▲건강보험DB 기준 산출되기 어려운 예체능계열 졸업자 비율이 높음 ▲사회전반 취업률 저하에 따른 문제가 그것이다.

여학생 100% 이대·숙대와 취업률 차이 미미

그러나 우리신문이 '2014년 졸업자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해명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졸업자 중 우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11년 46.2%, 2012년 46.7%, 2013년 45.7%, 2014년 47.1%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취업률 하락과 여학생비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여학생 졸업자 비율이 100%인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의 취업률, 47.5%와 48.3%는 우리학교와 각각 3.1%pt, 2.3%pt의 차이였다. 계열별로 분리·분석할 경우 경상계열에서는 이화여대(68.6%)와 숙명여대(55.4%)가 우리학교(50.4%)를 앞섰다.

건강보험 등록자만 취업자에 포함하는 현재의 취업률 계산방식에서 프리랜서나, 1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저조는 대학 '공통'의 현상이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예체능계열 졸업자 비율이 14.8%로, 고려대(0.8%), 성균관대(5.0%), 한양대(8.9%), 연세대(2.8%), 중앙대(2.4%)보다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2014년 35.6%로 앞서 비교한 대학들의 예체능계열 취업률 고려대



사회전반 취업률 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학교 측의 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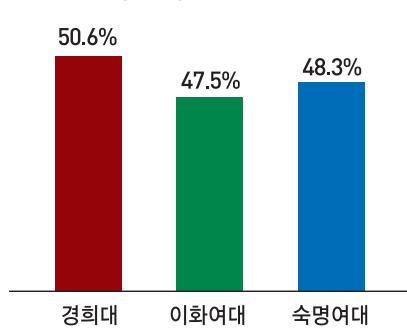
(51.7%), 성균관대(42.2%) 중앙대(28.8%) 한양대(22.7%), 연세대(9.8%)에서 중간 수준이다. 또한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지난 2012년 33.0%, 2013년 34.3%, 2014년 35.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취업난 속 고려대 취업률 상승, 취업 지원 2년 연속 최우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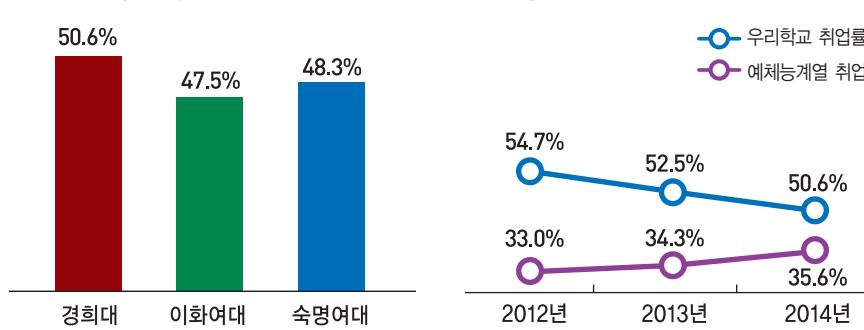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취업난이 존재하지만 고려대의 취업률이 69%를 기록하고 성균관대의 취업률이 63%를 기록한 것은 우리학교도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오히려 취업률이 상승한 고려대(0.2%pt)나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인 연세대(0.1%pt) 등의 결과를 통해 대학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8월 동아일보·채널A가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대학'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학교의 취업·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 평가에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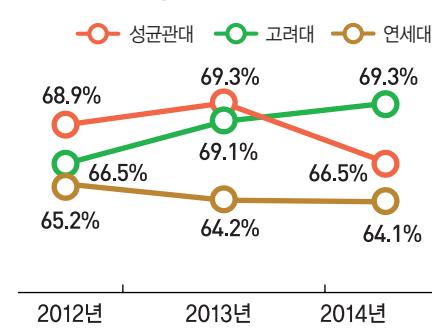
〈여학생이 많아서 취업률 하락?〉



〈예체능계열 취업률과 전체 취업률 추이〉



〈취업률 상위 대학 3개년 추이〉



려대는 '자아·진로 탐색지원', '취업 기회 정보'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학교는 49개 대학을 3등급(최우수청년드림대학·우수청년드림대학·청년드림대학)으로 나눈 결과 '청년드림대학'이었다. 타 학교에 비해서는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폴이 가능하다.

한편 취업률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양 캠퍼스 취진처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 정현향 계장은 '1·2학년 때부터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다'며 '이르면 1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기존에 취진처 프로그램의 다수인 3·4학년 위주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저학년 대상프로그램에 힘주어 운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취진처 프로그램 넘어 단과대학 차원의 취업지원 필요

다면 취진처 프로그램 외에도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별 취업관련 '계획'도 필요한 상황이다. 취진처는 '공통' 취업분야

중심인 만큼, 학과별 특수직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한상백 팀장은 "진로상담 교수제의 내실을 키우고, 단과대학 차원의 졸업생 멘토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인 취업률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교수, 학생, 동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직업목적학교'가 되는 것과 사회진출이라는 교육성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구분해,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진처는 '공통' 취업분야

2014학년도 2학기

교수자 대상 강의컨설팅 안내

강의컨설팅은 강의촬영 및 수업컨설팅을 통하여 본인 강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컨설팅 신청		진행	결과제공
교수	첨부된 신청서에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 후 이메일 신청	작성 후 이메일 신청	작성불평조사 및 분석
1유형	• 학생설문조사 + 교수역량조사(수업요구사항 및 만족도조사)	작성설문분석	작성설문분석
2유형	• 학생설문조사 + 강의촬영 + 교수역량조사(수업요구사항 및 만족도조사)	교수역량분석 (평가판단)	교수역량분석 (평가판단)
3유형	• 학생설문조사 + 강의촬영 + 교수역량진단 + 전문가 컨설팅	수업진행 및 평가	전설정 결과
CTL	신청서 첨부 및 일정조율	전문가한별화	전설정 결과

1)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nline@khu.ac.kr)로 신청
2) 문 의 :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031-201-3195~7

도현미 연구원(E-mail: online@khu.ac.kr)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취업의 길을 찾자!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지금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 ◆ 삶의 길을 묻는 그대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대 : 4학년 1:1 취업진로 지원
- ◆ 대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 도움 줄 내용 : 입사희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자무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 도우미 : 노동섭(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선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섭 팀장(rohds@khu.ac.kr)
윤재훈 계장(jhyoon@khu.ac.kr)
-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 장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힘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기획 – 2014 취업률 분석

자연계열 하락 수·폭 모두 커 … ‘인문’ 5개 분야 상승

계열 및 학문분야별 취업률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2014년 우리학교 취업률을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문계열은 9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상승한 반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시스템에 공개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내용을 우리신문이 분석한 결과다.

인문계열 : 국어·국문학 분야 취업률이 41.1%에서 32.8%로 급감했으나 역사·고고학(▲17.9%pt)과 일본어·문학(▲19.2%pt), 철학·윤리학(▲18.1%pt) 각 분야의 취업률은 크게 올랐다. 러시아어·문학과 중국어·문학 역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인문계열 평균취업률인 45.5%보다 높은 학과는 영미어·문학(47.2%)과 일본어·문학(56.4%), 중국어·문학(49.2%) 3개 분야뿐이어서, 지속적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

자연계열 : 자연계열의 경우 취업률 하락 분야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취업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가정관리학, 의류·의상학, 생명과학을 제외한 9개 분야에서 6개 분야의 취업률이 낮아졌다. 하락폭 역시 생물학과 지구·지리학이 각각 33.9%pt와 31.1%pt라는 하락폭을 보였다. 생물학은 지난해 45개 대학 중 15위에서 44개 대학 중 40위로 추락했고, 지구·지리학은 22개 대학 중 1위에서 12위로 미끄러졌다.

공학계열 : 우리학교는 공학계열 중 12개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부를 운영 중이다. 이중 지난해에는 취업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교양공학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 중 6개 분야의 취업률이 하락했다. 특히 산업공학 분야의 취업률이 가장 큰 폭(13.2%pt)으로 낮아졌다. 분야평균 취업률이 2.1%pt 줄어든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59개 대학 중 29위였던 산업공학 분야의 취업률 순위 역시 올해 61개 대학 중 46위로 하락했다.

전자공학과 화학공학 역시 8.7%pt와 7.1%pt씩 취업률이 하락했지만 계열평균 취업률 65.6%보다는 모두 높은 취업률을 유지했다.

사회·예체능계열 : 사회계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법학 분야를 제외하면, 언론·방송·매체학이 가장 낮은 취업률인 37.1%로 나타났다. 분야 순위 역시 지난해 78개 대학 중 55위에서 72개 대학 중 61위를 기록했다. 예체능 계열은 산업디자인(60.0%)과 패션디자인(50.0%) 분야만 각각 분야 평균 취업률 51.0%와 47.3%보다 높았다.

의약계열 :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인해 의학분야를 제외한 간호학, 약학, 한의학 모두 분야 평균 취업률을 웃돌았다. 특히 한의학은 취업률 82.3%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11개 대학 중 3위에 올랐다.

계열 및 평균 취업률	학문분야(전년대비 취업률)	2014		2013	
		순위(평균대상 학교 수)	취업률(%)	분야평균 취업률(%)	순위(평균대상 학교 수)
공학계열 65.6%	건축학▲	75(88)	52.4	65.1	83(89)
	건축·설비공학▽	74(81)	46.7	64.4	70(82)
	교양공학	2(6)	50.0	47.0	-
	기계공학▽	38(77)	71.6	71.6	28(79)
	산업공학▽	46(61)	54.3	64.3	29(59)
	신소재공학▲	60(65)	48.4	63.1	60(64)
	에너지공학▲	9(38)	75.0	61.2	12(28)
	전산학·컴퓨터공학▲	52(126)	64.3	61.8	94(128)
	전자공학▽	23(97)	76.2	68.7	7(94)
	정보·통신공학▽	104(117)	44.4	63.8	75(124)
의약계열 72.1%	토목공학▲	46(91)	60.0	57.2	83(95)
	화학공학▽	30(59)	66.3	66.0	20(57)
	간호학▲	46(99)	71.2	68.4	71(83)
	의학▲	8(14)	53.6	52.3	17(20)
	의학▽	40(40)	7.4	88.0	38(40)
	한의학▲	3(11)	82.3	78.0	5(11)
	가정관리학	24(30)	43.3	60.0	-
	물리·과학▲	15(68)	65.7	51.5	14(68)
	의류·의상학	38(41)	34.6	53.3	-
	신림·원예학▲	18(29)	50.0	54.1	24(29)
자연계열 52.3%	생명과학	59(98)	43.8	46.7	-
	생물학▽	40(44)	19.4	46.2	15(45)
	수학▽	42(76)	37.3	37.8	34(76)
	식품영양학▽	97(105)	48.9	60.2	89(106)
	자원학▽	39(40)	23.5	56.1	18(37)
	지구·지리학▽	12(22)	43.9	48.6	1(22)
	화학▲	21(78)	63.0	50.9	60(79)
	환경학	62(78)	46.8	54.6	53(77)
	경영학▽	122(156)	51.7	58.9	49(157)
	경제학▲	34(85)	56.8	57.0	35(88)
사회계열 54.1%	관광학▽	26(38)	55.4	59.2	14(38)
	교양사회과학▲	3(5)	58.8	58.5	6(7)
	국제학▽	18(28)	50.5	54.5	15(27)
	금융·회계·세무학▽	62(67)	41.2	55.9	27(66)
	무역·유통학▽	21(92)	66.2	56.2	16(92)
	법학▲	65(95)	34.7	40.5	79(99)
	사회학	9(39)	55.6	48.2	-
	언론·방송·매체학▽	61(72)	37.1	51.7	55(78)
	정치외교학	22(53)	50.0	48.1	-
	행정학	23(27)	59.3	47.8	-
인문계열 45.5%	국어·국문학▽	70(107)	32.8	37.7	54(106)
	러시아어·문학▲	18(23)	41.2	53.5	18(22)
	스페인어·문학	14(15)	41.8	54.4	12(15)
	역사·고고학▲	25(69)	43.8	41.8	65(70)
	영미어·문학▽	47(132)	47.2	43.8	-
	일본어·문학▲	13(78)	56.4	45.3	67(77)
	중국어·문학▲	46(96)	49.2	49.1	67(93)
	철학·윤리학▲	18(55)	44.4	41.7	51(58)
	프랑스어·문학▽	35(45)	37.5	46.4	76(134)
	공예▽	20(21)	26.7	44.1	11(21)
예체능계열 41.4%	기악▽	25(34)	11.5	19.0	20(32)
	기타음악	13(31)	25.0	26.5	-
	산업디자인▲	10(53)	60.0	51.0	24(52)
	시각디자인▽	47(62)	40.0	48.1	44(62)
	천문·기상학▽	8(10)	31.3	39.7	8(10)
	무용▲	30(38)	15.2	29.7	34(37)
	성악▲	13(27)	24.0	26.8	18(25)
	순수미술▽	57(64)	18.4	32.2	50(64)
	연극·영화▲	18(46)	44.0	35.6	29(47)
	작곡▲	10(22)	20.0	25.1	16(22)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체육▲	97(121)	40.8	50.2	105(123)
	패션디자인▲	19(44)	50.0	47.3	29(44)
					43.8

경영·영어·정외 ‘최상’ 교육여건은 여전히 약세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2014 중앙일보 대학 학과평가’ 결과 경영학부와 영어학부, 정치외교학과가 최상 등급에 올랐다. 특히 영어학부는 3년 연속, 정치외교학과는 2년 연속 최상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각 8개 학과를 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학과별로 최상, 상, 중상 등 총 6개 등급으로 나뉘 발표했다. 각 등급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최상 등급은 2.28% 이내, 상 등급은 2.29%~15.9%, 중상 등급은 16%~50%에 해당한다.

3개 학과 외에도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에서는 중국어학과와 행정학과가 중상 등급을 기록했다. 이 공계열 학과에서는 지난해 평가에서 중상 등급을 받았던 물리학과와 화학공학과가 한 단계 올라, 상 등급을 받았고 간호학과와 식품영양학과, 전자·전파공학과 역시 상 등급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영공학과와 응용물리학과는 중상 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전임교수 1인당 논문수 ▲전임교수 1인당 국제논문수 ▲전임교수 1인당 저 저·역서 ▲전임교수 1인당 자체연구비 ▲전임교수 1인당 교외연구비 등 연구부문 관련지표와 ▲교원1인당 학생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의 교육여건 및 성과 관련 지표로 구성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최상등급을 받은 3개 학과를 비롯해 전임교수 1인당 국제·논문수와 같은 지표에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인 반면에 교원1인당 학생수나 취업률 등 교육여건과 성과 지표는 약세였다.

취업률 지표에서도 최상 등급을 받은 우리학교 경영학과의 취업률은 66.8%(2013년 기준)로 같은 최상 등급을 받은 고려대 80.6%와 성균관대 83.1%보다 저조했다. 정치외교학과 역시 우리학교는 44.1%인데 반해 고려대(70.7%), 서강대(57.1%)보다 낮았다. 경영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중도탈락률이 각각 1.8%와 2.2%인 반면, 최상 등급을 받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중도탈락률은 0.8%, 정치외교학과의 중도탈락률은 0.5%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연구성과와 교육여건 및 성과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 측은 “학과별로 비교 대상이 된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각 학과가 개선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2014 중앙일보 대학 학과평가 결과〉

최상	경영학부, 영어학부, 정치외교학과
상	간호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자·전파공학과, 화학공학과
중상	산업경영공학과, 응용물리학과, 중국어학과, 행정학과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					

<tbl_r cells="1" ix="2



공공기숙사 건립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학생사회가 직접 나섰다

총학, 16일 구청 항의방문·공동민원 제출

공공기숙사 건축허가 지연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 SPACE21 사업 중 공공기숙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학생사회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지난 달 말에서 이번달 초 사이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었으나,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동대문구청이 ‘사업계획안’을 계속 반려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학 생회(총학)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서 ‘공공기숙사 인허가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더불어 ‘공공기숙사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경희인 공동민원’도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민원에는 ▲공공기숙사 건축 허가 반려는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외면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공공기숙사의 원만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생들의 서명

을 받았고, 지난 12일 기준 2,418명이 공동민원에 참여했다. 총학은 1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숙사 신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며, 오는 16일 공동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출하는 항의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은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우리의 뜻을 알리길 바란다”며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 “환경평가 기준 불충족” 허가 지연 배경에 대한 ‘의혹’ 제기

건축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크게 기획-설계-허가-착공과 단계를 거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건축 허가’ 단계다. 지난 6월 발전협의회의 발목잡기로 지연되던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승인되면서, 이후 건축과정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동대문구청 측이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계속 반려하면서 공사가 다시 한 번 지연

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측은 “SPACE21 사업단 측이 제출한 서류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인허가가 보류된 상태”라며 “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인허가 과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PACE21 사업단이 동대문구청에서 요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안으로 수정해 제출해도, 반려가 계속되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학 박 회장은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안을 제출해도 결과는 늘 똑같다”며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제 이유는 임대업자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동대문구청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임대업자들의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 민원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중재하고자 학교-주민-구청 간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경희대로를 두고 법인 경희

학원과 동대문구청 간의 법적공방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는 소문도 나온다. 법인 경희학원이 소유한 경희대로를 동대문구청에서 무단 사용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황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책사업인 공공기숙사, ‘저리’ 이지만 손해 누적 중

1심은 법인 경희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동대문구청 건축과 측은 부인하며 “그런 의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며, 허가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변 지역의 주거비가 비싼 대학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을 빌려준 뒤, 기숙사를 짓게 하는 사업이다. ‘저리’ 이지만 기숙사 건립이 늦어지는 만큼 대학의 손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체제 기로에 서다

교수의회 전체대위원회의 예정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내부 위원 간 폭언·협박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15일 교수의회 전체대위원회에서 향후 비대위 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비대위 내부 위원 간 폭언·협박 문제로 불거진 이번 문제는 지난달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일부가 ▲비대위 A위원이 B위원에게 한 폭언·협박 문제 ▲비대위 권한 남용 및 구성 목적 위배 등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표면화됐다. 이후 비대위 이성근 위원장이 ▲폭언 협박을 받았다는 B교수의 비대위 서신발송 방해 ▲동 의장의 정치적 비중집으로 인한 갈등화 등을 제기한 이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지난 5일 동석호 의장이 메일을 통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논란은 15일 전체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더 이상 갈등 없는 교수의회가 되도록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비대위에서도 “갈등에 대해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신 것을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신내용만으로는 원만한 ‘마무리’가 그려졌으나, 갈등의 시발점인 폭언·협박 논란의 A위원장과 B위원장은 현재까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5일 열릴 예정인 교수의회 전체대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비대위 체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 의장은 “독단적 행위를 일삼는 비대위는 더 이상 교수의회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비대위의 존속여부나 행보에 대해선 전체대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대위 이성근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회에서 논의될 비대위의 향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4일 중앙개시판 대자보를 통해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게시했다. 행정 거버넌스부터, 연구부문, 경희의료원 등 12가지에 달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총장실에선 비대위 자체의 적법성 논란으로 인해 답변을 보류 중에 있다.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천정-전자정보대학관

9월

/채용설명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5
- 현대자동차	- LG디스플레이	- 현대중공업		
8	9	10	11	12
		- 포스코 그룹		
15	16	17	18	19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오토에버		- 두산그룹	- 대우건설	
22	23	24	25	26
- 효성그룹 - NHN - 엔터테인먼트		- 한국타이어		
29	30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천정-전자정보대학관

9월

/채용상담/

일시	기업명	장소
9/4(목), 10:00-17:00	현대중공업, KTDS, 메그나침반도체, 한도그룹(만도, 만도홀딩스, 한도스펙트), KPS, 현대중공업, 현대그룹(현대, 현대그룹, 현대그룹, 현대그룹, 현대그룹, 현대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5(금), 10:00-17:00	현대중공업, 한국 NSK	도서관 1층 로비
9/11(목), 10:00-17:00	코오롱그룹(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도서관 1층 로비
9/12(금), 10:00-17:00	포스코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5(월), 10:00-17:00	현대엔지니어링	도서관 1층 로비
9/16(화), 10:00-17:00	SK케미컬	생명과학관 115호
9/16(화), 10:00-17:00	현대건설, LS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7(수), 10:00-17:00	삼성전자(DS팀)	도서관 1층 로비
9/18(목), 10:00-17:00	OCL	공대 2층 잡카페
9/19(금), 10:00-17:00	대우건설	공대 2층 잡카페
9/22(월), 10:00-17:00	효성그룹, NHN엔터테인먼트	도서관 1층 로비
9/24~25(수,목), 10:00-17:00	한국타이어	도서관 1층 로비

칼럼

알바노동자 필수상식 ①



등록금에, 교재비에, 월세에, 생활비까지… 대학생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곳은 도처에 널려있다. 어느 새 따리붙은 ‘성인’이라는 꼬리표는 부모에게 함부로 손을 벌릴 수도 없다. 그렇게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적인 ‘생존의 조건’이 된다. 하지만 알바노동자의 노동3권을 비롯해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알바노동자 스스로 그동안 당연하지만 얻지 못했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할 때다. 이를 위해선 알아야 한다. ‘알바노동자 필수상식’ 첫 번째 순서로 알바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와 계약내용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연재순서
1회 : 근로계약서와 계약내용 유의사항
2회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3회 : 4대보험
4회 : 휴게시간 및 근무조건
5회 : ‘노동자’와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알바의 시작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 정문 앞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하는 K씨는 일주일에 5일 일한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매우 고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문 앞 편의점은 유동인구도 많고 야간에 일하면 솔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라도 일을 하는 이유는 집에서 용돈을 20~30만 원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워서다.

K씨는 구인광고에서 지금 일하는 곳을 보고 면접을 보았다. 인터넷에서 확인 할 때는 시급 5500원, 쪽하고 성실하고 서비스정신 투철한 사람 구함, 가족같이 일할 사람 구함 등의 말들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5210원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저임금보다 290원 높은 시급을 보고 당장 면접을 보러가게 됐다. 사장님은 첫 달은 수습이니까 5200원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55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했다. K씨는 6개월 동안 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취직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만들고, 가운데 간인을 찍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하나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알바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또 하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습기간 5200원’이다. 10원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알바노동자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만큼 계약서

이 이야기는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에서 2014년 3월에서 4월 한 달간 회기동, 이운동 주변 편의점 알바 노동실태조사를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다. K씨의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저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면 1년 반 동안 경희대에서 근로기준법을 알리기 위한 알바노조의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경희인 여러분 “안녕들 하신가요?” 서로의 안녕을 묻기도 힘든 시대에 젊은 지성들과 더불어 ‘나와 우리시대’를 토론할 수 있음에 우선 감사드린다. ‘재미있는 철학콘서트’는 나란 어떤 존재이며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내 삶을 꾸려갈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구상하는 수업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사와 동서철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도 배운다. 한마디로 나의 미래를 보다 철학적으로 계획해보는 것이다.

2013년 겨울 서로의 안녕을 묻는 물음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아픔을 물었을 때 그것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이 물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에 우리에게 닥해준 것은 거듭되는 참사였다. 그것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나 노동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4백여 명의 생명이 가장 비인간적으로 고통받으며 숨져간 세월호의 비극이었다.

그 후로도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풍조가 계속되고 있다. 마치 이 땅의 청년들이 모두의 안녕을 물은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냥, ‘보이지 않는 힘’이 보복을 하는 듯하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을 걸었다. 모두가 주술에 빠져 절망할 때, 경희교정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외침이 울려나왔다. 그리고 젊은 지성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중 2010년에 개정된 조항이 중요하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사장님, 즉 임금을 대가로 나의 노동을 구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이로 똑같은 근로계약서 두장을 만들고, 가운데 간인을 찍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하나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알바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또 하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습기간 5200원’이다. 10원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알바노동자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만큼 계약서

라도 위 조항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 위반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부분이다. 바로 수습기간에 대한 문제다. 최저임금 법 5조에 따르면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알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듯 K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알바노동자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만큼 계약서

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노동계약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실제로 알바 상담과정에서 사용자가 알바노동자에게 “여기서 일한 적 없다”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있거나, CCTV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한 이후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하면 합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 못하겠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방법들을 추천한다.

첫 번째는 월급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다. 내 통장에 찍힌 사용자 명의의 임금 내역은 내가 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두 번째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다. 특히 나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녹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면접 때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들어가거나, 전화통화를 녹취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자기 다이어리에 근무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후에 해고를 당한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 내가 일한 시간, 근무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달력은 주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증거 될 수 있다.

만약 K씨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적용, 수습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는 일이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이런 문제는 노동부의 전화한통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겁먹을 필요 없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설명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은 “알바도 적용되나요?”다. 알바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비롯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 그 첫걸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 보시는 것은 어떨까?



알바노동자도 노동 3권을 비롯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인 이수병 선생의 노력처럼 민족 지성사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

이 손에 손을 잡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것을 보았다. 작은 감동이었다.

작년 겨울 경희 후마니타스 학생위원회로부터 ‘재미있는 철학콘서트’라는 강의를 맡아 달라는 청을 받고 어려운 곡

절을 거쳐 경희 교정에 처음 섰을 때의 감동 그 자체였다. 시간강의 하나가 무슨 감동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삼성의 대학비리와 학문자유 탄압을 비판하다 성균관대에서 해고당했다. 1년 11개월 넘는 1인시위 끝에 복직과 재해고를

거듭하던 터에 경희학생들의 강의요청은 큰 힘이 되었다. 201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정돈 이사장에게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더 큰 의미는 한국지성사의 연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경희대의 전신이 신흥무

관학교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

나 한국지성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신흥무관

학교-신흥대학-경희대’로 이어지는 教史는 항일전쟁기(일제강점기) 동안 단절

교양리포트 ⑩ - 재미있는 철학콘서트

나란 어떤 존재? 대학에서 어떤 공부해야 할까?



필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좌 ‘재미있는 철학콘서트’는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대학공부와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철학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 필자의 의견은 대학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건대신문 기자들은 1200호가 발행되지 못하자 무제호의 신문 발행을 통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교내에서 건대신문 편집권 보호를 위한 지지서명을 받기도 했다

어느 학보사의 씁쓸한 개강

특별기고 - 학보사 편집권 자유

조수민 서언회 회장 (성대신문 편집장)

[알림] <성대신문> 제1566호 발행 연기 안내 성대신문 발행 계획에 따르면 9월 1일인 오늘, 2014년 2학기 개강호인 성대신문 제1566호가 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면 구성에 있어서 주간 교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신문이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보가 발행되는 월요일, 2학기 개강을 맞아 평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을 개강호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한 학보들이 있었다.

<국민대신문>의 경우 제910호 보도기사 배치과정에서, 특정 학내 사안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재배치할 것을 주간교수가 요구하면서 발행이 늦어졌다. 결국 <국민대신문> 기자단은 주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지만, 국민대신문 기자단 내부에서 편집권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형

이다. <한성대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492호의 1면 탑 기사로 나가기로 예정돼있던 사안에 대해 주간교수가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1면의 탑 기사 부분이 ‘백지기사’로 발행됐다. <삼육대신문> 역시 개강호 신문 배포에 문제가 생겼다. 발행 전 신문 사안을 학생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성대신문>.

“수민씨 잠깐 내려올래요?”

대학언론사무국의 간사가 건넨 ‘잠깐’은 결코 잠깐이 되지 못했다. 8월부터 기획해 1주일간의 제작 및 조판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인쇄된 16페이지짜리 개강호를 두고 주간교수가 “이 상태로는 배포할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간 교수는 16페이지 중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하고 재인쇄해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호 신문은 나가지 못한다고 단정지었다. 결국 페이스북을 통해 ‘알립’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독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학보사 편집권을 둔 일련의 일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학보사 기자로서 일하며 학보가 학교의 ‘얼굴’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자리 잡은 일부 학보사에게 이런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학내 사안에 대해 학생 기자와 학교 측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민하고 민감한 학내 사안에 대해 ‘학우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학보는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그냥’ 싫기 때문에 학교 측은 끊임없이 기사에 대한 논조 조절을 요구한다. 어떠한 사안에 대한 비판 강도를 조금은 낮게 가주기를, 가끔은 사안 자체를 아예 내보내지 말아 주기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과연 학교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번 개강호 관련한 일과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학교 신문은 학교의 얼굴이다”라는 논리다. 학교 신문은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대표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소식들을 위주로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보사 기자로서 일하며 학보가 학교의 ‘얼굴’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얼굴이 당장의 길치레만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결코 학교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다. 사실 단순히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학생 기자들은 학교를 위한 ‘좋은’ 얼굴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기자가 아닌 ‘학생기자’임을 주지해야 한다. 전자와 후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편집권을 침해하는 대학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 학생기자를 다룬다. 이를 통해 편집권에 대한 간섭을 당연한 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자는 비판적이어야 한다. 학생 역시 부정한 의견에 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학생기자’는 이 본분에 충실히 싶다.

언젠가부터 학보사끼리 모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각 학보사별로 편집권이 얼마나 보장돼 있는지를 서로 묻는 것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됐다. 비상식적인 풍경이다. 신문사의 편집권은 온전히 신문사에 있어야 한다. 이 간단한 정의가 올바른 비판을 생산케 하고, 진정한 ‘대학’을 만든다.

▶1면에서 이어짐

풀이하는 주역에서 추구되는 목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곧 ‘중용’이었다. 그래서 옛부터 주역과 중용은 ‘표리(表裏)’가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 생명관을 잘 보여주는 한의학에서는 음 양의 균형과 평형을 중시한다. 그래서 넘치는 기는 빼어내고(寫) 부족한 기를 채워주는(補) 것이 한의사의 역할이다.

‘중용’은 또한 전통적인 예(禮)의 원리이기도 하다. 가령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3년 상을 지낸다. 여기서 3년 이상이면 너무 길고, 이하이면 너무 짧다. 그래서 <예기(禮記)>에 ‘무릇 예란 중용을 원리로 하여 제정한다’라고 하였다.

글자의 개념을 보자면, 주자는 “중(中)이란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용(庸)이란 평범하고 항상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음과 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중용은 전통적인 예(禮)의 원리이다

“중(中)이란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것이면 용(庸)이란 평범하고 항상된 것이다”

였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해하자면, 중(中)이란 어떤 시스템의 평형(Equilibrium)이며 용(庸)이란 그 항상성(Homeostasis)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 볼 때 ‘중용’은 생명의 원리이고, 주역의 원리이고, 예의 원리이니 주자나 퇴계에 의하면 ‘중용’ 이야기로 바로 도(道)의 근본이며, 고래로 성인들이 전수해 온 도통(道統)의 비법이기도 하다.

참여마당

임선아
생물학 2013

커피·에너지 음료 수요 급증 과도한 섭취 주의해야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됐다. 개강과 함께 강의 시간에 줄지 않으려 책상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옮겨놓고 마시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카페인과 함께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12년 기준 국민 1인당 1년 커피 소비량은 484잔으로, 불과 10년 전인 2002년의 313잔에 비해 55%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 각성효과와 습관적 섭취를 언급한다.

요즈음엔 각성효과를 더 내기 위해 고카페인과 타우린을 포함한 일명 ‘에너지음료’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커피와 에너지음료 모두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이 목적이지만 과연 이것들이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생리 작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섭취하는지 의문이 든다.

카페인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각성시켜 일시적으로 줄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은 뇌의 교감신경을 억제, 혈압의 안정화 및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심혈관계 활동과 중추신경계의 흥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혈액의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억제하고 간의 해독기능을 좋게 하여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나다.

카페인과 타우린은 적당량을 섭취할 시

이로운 부분이 많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커피와 에너지음료보다 비타민C를 섭취하자.

카페인과 타우린은 위와 같이 적당량을 섭취할 시 이로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들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카페인은 체내에 흡수되면 부신을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뇌, 심장, 골격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따라서 카페인을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신경과민, 불안, 흥분, 안면홍조, 오한, 불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타우린의 경우엔 주기적으로 과량 복용했을 시 골다공증이나 설사, 위궤양까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에서 타우린은 1000mg, 카페인은 400mg을 성인 하루 권장량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에는 평균적으로 타우린이 1000mg~2000mg, 카페인은 평균 80mg ~ 100mg정도 들어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에 양주를 섞어 마시거나 비타민과 이온음료를 혼합한 일명 ‘붕붕 드링크’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넘는 것은 물론, 체내 흡수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페인을 술과 함께 섞어 마신다면 비정상적인 심장 수축이 야기되어 부정맥, 심계항진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붕붕 드링크를 마신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개강과 끝없는 술자리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기 보단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도록 해보자.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 대학교
국제교육원접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4. 8. 18(월) ~ 9. 2(화)
추가 접수기간 : 9. 3(수) ~ 9. 19(금)Level Test 영어회화 : 9. 2(화), 3(수)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9. 3(수) 17:15강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9. 10(수) ~ 10. 17(금) / 9. 8(월)~9(화),
10. 3(금), 9(목) 휴강, 9. 12(금), 26(금), 10. 10(금) 보강

개설강좌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액포함)
영어 회화	Level 1 ~ 6		오전 7:45 ~ 8:45 (월~목) 오후 6:30 ~ 7:50 (월~목)	150,000원
일본어 회화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중국어 회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프랑스어 회화	오후, 초급1, 초급2	오후 6:00 ~ 7:20 (월~목)	90,000원	
스페인어 회화	오후, 초급1, 초급2	오후 7:30 ~ 8:50 (월~목)	90,000원	
Book Club		오후 6:30 ~ 8:00 (화)		
Academic Writing Workshop		오후 6:00 ~ 7:50 (화~금)		
News Talk		오후 4:30 ~ 5:50 (화~금)		
JLPT 문법대책	N3	오후 4:30 ~ 5:50 (화~금)		
	N2	오후 6:30 ~ 7:50 (화~금)		
HSK 대비반	4급	오후 4:30 ~ 5:50 (화~금)		110,000원
	3급	오후 6:30 ~ 7:50 (화~금)		
	B1	오후 6:00 ~ 7:20 (화~금)		
DELF 대비반	B2	오후 7:30 ~ 8:50 (화~금)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리시아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태국어 회화				
한국어 회화				
9.13(화) 개강				
기초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스포츠 / 문화



우리학교 축구부가 U리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4권역 2위를 유지했다

첫경기, 제주국제대 4:2 격파 박인혁 선수 두골로 승리 이끌어

2014 카페베네 U리그 후반기

김지연 객원기자 hope1805@naver.com

지난 5일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열린 '2014 카페베네 U리그' 후반기 첫경기에 우리학교가 제주국제대를 4-2로 승리했다. 축구부는 후반기 첫 경기를 승리하며 4권역 2위를 유지했다.

우리학교는 전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제주국제대를 밀어붙였다. 엄진태(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며 침투했지만 수비수의 태클에 어렵게 막혔다. 하지만 전반 6분, 이른 시간에 제주국제대가 선취골을 터트렸다. 제주국제대 남동현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린 공이 휘면서 순식간에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갔다. 축구부는 이른 시간에 실점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지만 불과 몇 분 후, 주장 엄진태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불운이 이어졌다. 그러나 엄진태 선수를 대신해 들어간 안정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학교는 활발하게 공격작업을 진행했다.

전반 14분, 기회가 연달아 찾아왔다.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크로스를 받아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의 슈팅이 상대 수비의 헤딩으로 막히며 아쉬

운 찬스가 계속됐다.

우리학교 벤치는 제주국제대가 퍼붓는 맹공에 전반 20분, 이건철(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를 빼고 김한솔(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를 투입하며 수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습을 노리려는 의도를 보였다.

전반 30분, 박인혁 선수의 헤딩이 제주국제대 골키퍼에게 맞고 흘러나오자 유진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침착하게 골로 성공시키며 경기를 다시 1-1 원점으로 돌려놨다. 유진석 선수의 동점골로 우리학교의 기세가 올랐다. 동점골 이후, 김정세 선수와 박인혁 선수는 계속해서 추가 득점을 노리며 폐널티박스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전반전 추가시간에도 우리학교는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을 1-1로 마감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넣었던 제주국제대 남동현 선수가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다. 우리학교는 골키퍼 지승학(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의 선방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11분, 우리학교의 두 번째 골이 터졌다. 김한솔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유동원 선수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하며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기세를 몰아 우리학교는 후반 24분, 오른쪽에서 김한솔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박인혁의 헤딩슛으로 깔끔하게 연결하며 2위를 지켜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학교 특점선수〉

전반 30분 유진석
후반 11분 유동원
후반 24분·45분 박인혁

골 맘을 갈랐다.

그러나 이어진 후반 30분, 전반전부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제주국제대 이용민 선수가 드리블로 우리학교 수비진을 뚫고 골을 기록했다. 골대 오른쪽 구석을 보고 찬 이용민 선수의 공이 그대로 들어가며 3-2, 또 다시 스코어는 한 점 차로 좁혀졌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던 후반 45분, 안정훈 선수가 측면 깊숙이 침투해 있던 상황. 안정훈 선수는 뒤에서 달려오던 박인혁 선수에게 패스했고, 이를 받은 박인혁 선수는 쇄기골을 넣으며 우리학교는 4-2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이날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한 박인혁 선수는 "어려운 경기였는데도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후반기를 앞두고 체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 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4권역 2위를 유지한 우리학교는 9월 18일(목) 인천대와 후반기 두 번째 경기를 가진다. 전반기 우리학교는 인천대에게 빼아픈 0-1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우리학교가 인천대를 상대로 승점을 추가하며 2위를 지켜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결승에서 원광대 상대로 설욕전

"우승 여부 떠나 많은 응원 부탁"

인터뷰 - 핸드볼부 박희민 주장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 우리학교 핸드볼부가 지난달 31일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14 핸드볼 코리아 전국 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핸드볼부 박희민(스포츠지도학 2011) 주장을 만나 대회 이야기를 들어봤다.

핸드볼부 박희민 주장에게 이번 대회의 의미는 낱달랐다. 4학년이 된 후 주장을 맡은 그는 이전까지 '팀원' 일 때와 다른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학교 핸드볼부가 대학 내에서 한국체대, 원광대와 함께 강호로 꼽히는 만큼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열린 '2014 핸드볼 코리아 전국 대학선수권대회' 1차 대회에서는 원광대에게 15-17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이 컸다.

부상으로 훈련 어려워

"우승 목표로 어려움 이겨냈다"

설욕할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 2차 대회 결승에서 다시 한 번 원광대와 맞붙게 됐다. 양 팀 모두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반 막바지부터 주도권을쥔 우리학교 핸드볼부는 후반전에서 집중력을 더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 주장은 "원광대를 꺾고 설욕해 의미가 크다"며 "후반전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은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우승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첫 경기,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강원대를 만났지만 힘든 경기를 치렀고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다.

훈련 과정의 문제점이 날은 결과였다. 우선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다. 박 주장은 "한 달 반 정도 대회준비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는데 부상 때문에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주니어 대표로 다른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했고 훈련을 맞출 시간은 부족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우승까지 승리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박 주장은 '우승'에 대한 의지 덕분

이었다고 평가했다. "선수 모두 우승이라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 이런 목표 덕에 부상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선수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 박 주장은 "대회 준비기간에는 주장으로 활약했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었다"며 "조언에 따라 시합이 어렵게 풀릴 때는 팀원들을 격려해주고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장으로 마지막 학기

"전국체전 열심히 뛰겠다"

인터뷰 내내 박 주장은 핸드볼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학교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를 봤다. 실업팀 선수와 맞붙는데도 굴하지 않고 패기있게 경기에 임하던 우리학교 선수들의 모습에 반해 입학하게 됐다."

이후 핸드볼부에서 활동하며, "지켜야 하는 규칙이 엄격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체생활 속에서 규칙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는 체육부의 선수관리 프로그램인 AT프로그램 까지 자랑했다.

하지만 그도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박 주장은 "이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만큼 경희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승 여부를 떠나 많은 학생들이 핸드볼부의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김운철 기자 kycxello@khu.ac.kr

미디어센터 칼럼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춘·영화·음악·경희의 역사·유물 등의 다양한 소재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필진의 '프리미엄 칼럼'은 웹 홈페이지 media.khu.ac.kr 또는 모바일페이지 media.khu.ac.kr/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진의 '이 거지같은 청춘'

미디어센터의 간판 칼럼니스트 최상진 교수는 국어국문학과의 큰 어른으로서, 제자들의 고민은 물론 연애사까지 두루 뛰어들고 있다.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청춘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김용은의 '중앙박물관 유물 산책'

우리학교 중앙박물관 직원인 필자는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유물의 가치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의 글을 읽으며 유물 산책을 함께 떠나보시길.



안승범의 '작은 영화로 본 큰 세상'

우리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연구원이자 문화공간 '릴리랄라'의 대표인 필자는 이 외에도 '명함'이 많다. 시인이자 영화평론가로서 경희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가득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남기원의 '숨은 역사를 찾아서'

경희기록관에서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필자는, 빛바랜 자료 속에서 경희가 지나온 길을 더듬어 오늘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숨은 역사' 속 경희의 이야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조은아의 '강의 일기'

피아니스트이자 후마니스타칼리지의 객원교수인 필자는 그간 음악을 매개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 '경계넘기'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그 너머의 이해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의 강의 이야기를 소개한다.